

CREATION

TRUTH



어떻게 내 손에 성경이 왔는가?

“엄마, 손가락 가시 빼주세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와의 자식이나 손주가 하와에게 손바닥에 찢린 가시를 빼 달라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시가 나게 했던 장본인이 자신이 아닌가? 이때 하와 자신 때문에 이런 아픔이 생겼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가시덤불도 없었던, 범죄 이전의 좋았던 세상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또한 후손들에게 그런 세상을 남겨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에 가슴이 메어왔을 것이다.

“하나님께선 왜 이런 추위를 창조하셨어요?”

노아홍수와 습윤사막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손 중에 한 명이 극단적인 날씨를 경험하며 할아버지

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때 셈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습윤사막과 홍수 이전의 좋았던 모습을 말해주며, 훨씬 좋았던 날씨를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홍수직전에 가득 찼던 죄악 된 모습과 바벨탑을 쌓던 현장이 떠 올랐을 것이다.

“옆의 나라는 왜 말을 저렇게 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를 경험하지 못했던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이다. 이 질문을 받으며 그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바벨탑 사건 직후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모든 민족들이 서로 말이 통했었던 시절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바른 할아버지였다면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행한 일을 분명히 전달

했을 것이다. 탑을 쌓다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 말이 통하지 않다니!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타락해 왔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다. 홍수 심판은 아담 창조 후 1700년도 넘지 못하고 일어났다. 홍수 심판 직전의 타락의 모습이 이러했다.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창 6:11). 홍수 이전의 구체적인 타락 모습은 가인의 족보 상에 맨 끝인 라멕의 자락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나의 상처를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창 4:23-24). 라멕이 얼마나 살인에 주저함이나 뉘우침 없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끌어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안될 심판 직전의 모습이다.

바벨탑을 쌓았던 시기도 마찬가지다. 홍수 심판을 겪었던 노아와 셈, 함, 야벳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탑을 쌓은 것이다. “충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조상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을 때, “흠어짐을 면하자”라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아담의 첫 범죄 이후,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타락 모습이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땅의 권세자인 사탄은 타락 속도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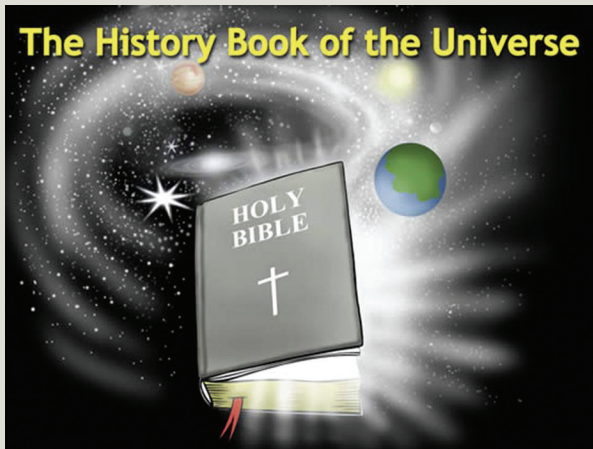
과연 바벨탑을 쌓은 후에도 여전히 언어가 하나였다면 어땠을까? 언어가 하나였을 때 우리는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다. 이는 참으로 사탄이 바라는 바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언어를 혼잡 시키므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서 인류를 흠으신 것이다. 인류가 지금 육대주에 퍼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단체로 대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흠으신 것이다.

이 흠어진 사람들은 세대가 넘어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상이 경험했던 진짜 역사를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지, 그분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홍수심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었는지... 모두 잊어버린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가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잘 전달했는데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전수는 한 세대만 끊겨도 회수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 사실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거기에 계셨던 분의 계시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흠어진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실이 기록된 계시의 책인 성



경을 맡기신 것이다(롬 3:2). 이스라엘에 맡겼던 말씀 그대로 창조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다음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책인 성경을 전파시키기 시작하신 것이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고전 1:21).

한편 바벨탑 때 흠어진 나라 가운데 동쪽으로 이동했던 한 민족이 있었다. 이들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 그리고 고조선을 세웠다. 이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대를 넘기며 진짜 역사를 잊어버렸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이 나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희망 없던 조선 땅에 누군가가 온 것이다. 바로 선교사님이다. 그분은 맨손으로 오지 않았다. 사실이 기록된 성경책을 들고 온 것이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선교 받은 나라가 된 것이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창조자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곧 여호와와 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 하리이다” (시 77:11)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세포 속에서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 (10)



생명은 생명에서만

세포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가장 기초적인 구조와 기능의 단위로서 언제나 기존에 존재하는 세포가 나뉘어지는 방법으로만 생겨난다. 언젠가 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것이다. 이것이 현대 세포 이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 세포 이론(theory)은 진화론 같은 가설(hypothesis)이 아니라 반복된 관찰을 통해 확인 되어 **사실로** 여겨지는 생각이다. 이 세포 이론에 의미를 제기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생각이 될 것이다.

이 세포 이론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세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세포가 나뉘어 진 생명체란 말이다. 그리고 나뉘어지기 전에 존재하던 세포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존재 했던 세포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란 말이다. 이런 방법으로 세포는 계속 그 이전에 이미 존재 했던 세포에서만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맨 처음 존재했던 세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정직한 논리로 말한다면 첫 번째 세포는 스스로 만들어 진 것과는 반대로 창조 되었어야 한다.

간단한 원자가 더 큰 원자로, 원자가 분자로, 분자가 모여 고분자로, 그 우연히 생긴 고분자가 어떤 기능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고분자들도 우연히 다른 고분자들과 조화를 이루어 가장 간단한 세포가 수십억년 전에 원시 바다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동화는 이미 오래 전에 과학자들에게 폐기 처분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연발생설 혹은 화학진화 이론의 한 부분인 아미노산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밀려가 성공시켰다는 교과서 내용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포

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연발생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실험실에서 생명의 비밀을 찾던 과학자가 죽다.” 밀러 박사가 죽던 날(2007년 5월 23일) 로이터 통신이 타전한 기사의 제목이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더욱 참담하였다. 밀러의 유일한 공적은 진화 이론을 “실험했다는 당돌함 뿐”이었으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은 과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 된 교과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는 비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 전문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밀러의 발견이 생명 존재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밀러의 실험은 세포는 이미 존재했던 세포에게서 나온다는 세포 이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세포는 다윈이 생각했던 아주 아주 작은 간단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도시나 국가처럼 복잡하고 사람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품 수가 500 만개에 이르는 대형 비행기 200 대를 마침표 크기의 구(球)의 백만분의 1 정도의 공간에 축소해서 넣는 정도로 복잡한 것이 세포다.

세포 속에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정보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그 정보 체계(DNA)는 마치 책처럼 글자-문장-책-전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과 같은 책에 보관 된 이 정보는 특별한 생체 기계인 단백질이 없으면 읽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DNA에 들어 있다. DNA와 단백질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생명체가 된다는 말이다. 이 세포 안에는 물질이 운반되는 고속도로도 있고 물류 센터도 있고 트럭들도 있다. 자물쇠와 열쇠와같이 정밀하게 전달 되는 수 천 개의 연락망도 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만든 대도시와 같은 시스템이다. 물론 세포의 복잡함과 정밀함과 효율적인 면 등은 인공적인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준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장 작은 생명체인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명 탄생에 대한 진화 이론도 없고 사람이 세포를 만들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어떤 세포도 자신의 세포 밖에서 새 세포를 만들지 못한다. 세포 이론이 말하고 있듯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세포가 나뉘어지는 방법 외에는 세포의 존재는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각 종류의 생명체들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 되어 있어야 한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세기 1 장에 무려 10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강조된 내용이다. 종류대로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한 창조자 하나님은 창세기 1 장에서 32 번이나 더욱 강조 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창조자라고 기록하였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한복음1:3),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로새서1:16). 또, 요한복음(14:6)은 “내가 곧 ... 생명이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세포 이론같은 현대과학이 흠잡을 수 없는 선언, 아니, 오히려 전적으로 지지하는 선언이다. 모든 종류의 생명이 지금도 생명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새 사무실로 이전

창조과학선교회의 새 사무실을 예전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새 주소는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으로 Olympic Blvd와 Union Ave. 가 만나는 곳입니다. 전화 번호와 우편물 보내시는 주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태현 박사 소식

세계관 강의를 하고 있는 최태현 강사는 지난 1월 말에 박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2011년 8월부



터는 University of Hawaii에서 행정학 교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창조과학 사역이 시작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세미나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에서 지난 2월 9, 16, 23 일 3 회에 걸쳐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만 부회장과 최우성 박사가 함께 인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창조과학 탐사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의 창조과학 세미나는 2월 26일 토요일 하루에 3 번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 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매 주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최태현 박사의 인도로 인류의 기원, 과학, 성경을 믿은 과학자들, 창세기 1 장과 세계관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는 6월 12일부터 4 주간은 이재만 선교사의 인도로 노아홍수, 빙하시대, 패러다임, 그리고 지구의 나이 등의 주제로, 9월 18일부터 4 주간은 최우성 박사 인도로 생명과 관련 된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텍사스의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중대 목사, 3월4-6일), 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3월 4일)에서도 세미나가 진행 되었습니다.

제 4기 인턴십 마침

지난 12월부터 시작 된 인턴십 ITCM-1(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10 주 과정이 2월 25 일에 마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ITCM-1 과정은 성경을 중심으로 창조과학 전반의 강의, 탐사여행 참석, 세미나 참석, 그리고 창조과학 서적을 공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인턴십에 참여한 노회성 과학교사의 글이 14면에 실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자 과정인 ITCM-2도 곧 진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턴십에 참석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창조과학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CM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LA 의사팀 탐사여행

지난 2월 19-20일 LA 의사팀의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지난 해 6월 말 빙하시대 탐사여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때마침 내린 폭설과 햇살의 조화로 환상적인 그랜드캐년의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여행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확신과 전도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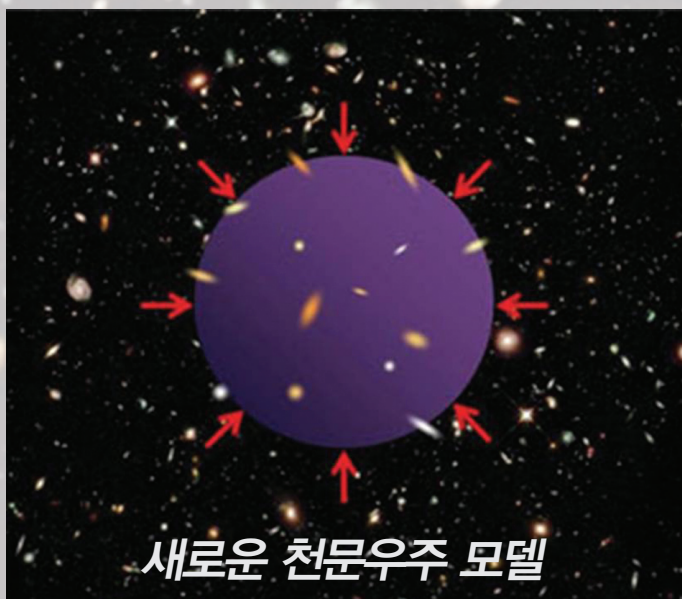
‘어 성경이 읽어지네’ 팀 탐사여행

‘어 성경이 읽어지네’의 생터 성경사역원(대표: 이애실)팀 50명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어 성경팀’은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1-11장의 하나님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며 성경전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임을 공감했습니다.

2011년 모집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탐사여행의 대부분은 교회나 단체에서 신청이 옵니다. 아래 탐사여행은 창조과학 선교회에서 직접 모집하는 탐사여행입니다. 모집 탐사여행은 빨리 마감됩니다.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 일반인 온누리교회, 신학생 탐사여행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하므로 참가비가 훨씬 적지만 자격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각 탐사여행에 대한 문의는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해주세요. (213-381-1390)

6월 6-9일	창조과학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450)
6월 20-22일	3차 신학생 탐사여행	신학생(\$90)
6월 23-25일	빙하시대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300)
6월 27-29일	12차 유학생 탐사여행	유학생(\$90)
7월 18-20일	창조과학 탐사여행	자격 제한 없음(\$300)



시간의 팽창과 정지(3)

지난 호 요약: 창조 첫째 날 창조 된 지구는 깊음의 물로 된 지구였다. 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공창을 만드셨는데 깊음의 물은 펼칠 수 있는 공창 위에 있었고 그 물 위에는 수십억 광년이나 확장 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있었다.

창조 둘째 날의 시작

하나님이 “그 깊음”의 중앙에 상대적으로 작은 원형의 물을 구별하셨다. 우리 인식으로는 비어 있지만 사실 어떤 물질로된 우주공간의 얇은 영역을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천공(firmament) 혹은 공창(the expanse)이라고 불렀다(창1:7). 히브리어로는 라퀴아(raqia)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망치질하여 얇게 펼칠 수 있는 동이나 금과 같은 고체의 물질과 같은 것임을 암시한다. 라퀴아는 앞에서 언급한 우주공간의 천과 같은데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라퀴아 위에는 깊음의 물이 있었고, 그 물 위에는 수십억 광년 확장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도 우리 감각으로는 텅 빈 것으로 느껴지지만 역시 어떤 물질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 공창(라퀴아)을 펼치(팽창)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공창 위에 있는 물은 공간이 펼쳐짐에 따라더욱 얇게되고 궁극적으로 크고 작은 물방울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그 물방울들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얼어 굳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결국 공창위에 있던 물들은 얼음 입자로 된 구형(우주)의 껍질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었다.

창조 넷째 날의 빛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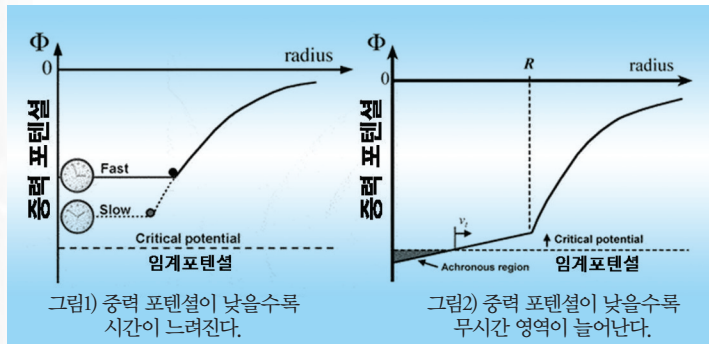
이제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별빛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별빛은 별을 출발하여 지구까

지 도착하는데 어떻게 수천년 밖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험프리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을 표현하는 방정식의 해(메트릭)로부터 물질, 공간,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물질은 공간을, 공간은 빛의 속도를, 빛의 속도는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것이다. 즉 시계의 상대적인 속도는 원래 중력의 중심 즉, 창조 첫째 날의 거대한 지구에 가까우면 느려지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빠르게 된다(그림1 참조). 중력의 중심에 점점 가까워지면 중력장의 포텐셜(Φ)이 낮아져 시간이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는 순간(그림 1의 점선으로 표시된 임계에너지(critical potential))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없는(achromous = no time) 위치에 이르게 된다(그림 2의 검은 부분).

창조 넷째 날, 하나님은 구창 가운데 은하들을 창조 하는데 이럴 경우 은하의 질량에 의해 우주의 중심(지구)의 중력 potential은 더욱 낮아지게 되어 중심에서부터 시간이 정지된 공간 환경(그림 2의 R)이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지구에 있는 시계들은 모두 완전히 멈추게 된다. 또 하나님은 시간이 정지하는 임계에너지(critical potential)를 조절하실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없는 영역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 더 많은 은하들이 생겨 날수록 중력에너지는 더욱 낮아지게 되고 시간이 없는영역이 늘어나 넷째 날 창조된 많은 은하들도 시간이 없는(무시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은하들의 창고가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간이 빛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구창을 펴(사 40:22) 공간의 장력을 높이면 빛의 속도가 변하고 임계포텐셜(critical potential)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므로, 무시간 영역의 반경이 지구쪽으로 향해 점점 작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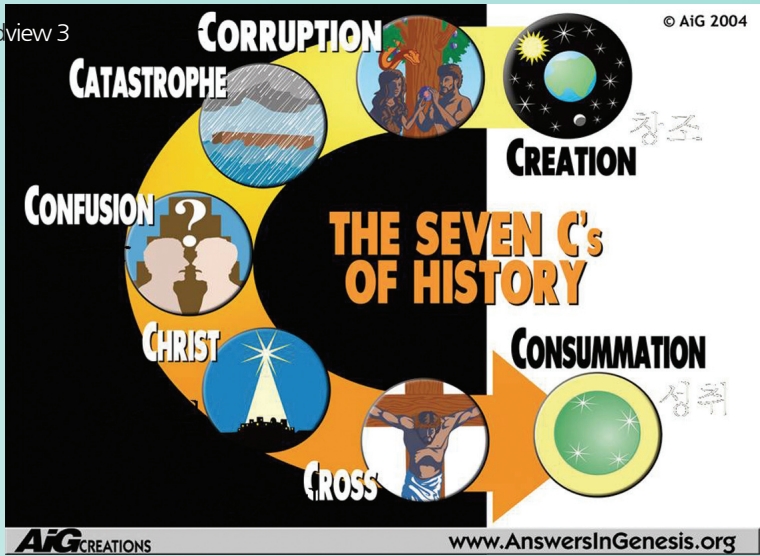
이 때 하나님께서 장력의 증가 속도를 빛의 속도와 같게 한다면 무시간 영역에서 벗어난 은하의 빛은 무시간 영역에 있는 지구 시간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구에 가까워 오게 된다. 마침내 지구가 무시간 영역에서 벗어나 시간이 흐르기 시작 했을 때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의 빛은 이미 지구에 도달해 있어 마치 순간적으로 빛이 도달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아직도 넷째 날인 것이다! 만약 그 때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을 보았다면 구창의 팽창때문에 그 때에도 적색편이 현상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번역·정리 /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참고문헌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2(3): 84-92

Humphreys, D.R. 1994, Starlight and Time, Green Forest, AR: Master Books, 67.



세상의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역사 1: 이 세상은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물질들은 법칙에 따라 오늘날의 세상을 이루어왔다.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이 조성된 물질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은 이 법칙에 따라 덧없이 흘러간다. 태양도 언젠가는 식을 것이고, 우주 전체도 언젠가는 고요한 열평형의 상태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역사 2: 이 세상은 창조주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주는 모든 만물과 그 법칙들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였다. 그러나 처음 창조된 완전한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창조주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구원자를 세상에 보냈다.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세상과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구원받은 인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역사 1과 역사 2를 비교해보자. 역사 1은 하나님ی 없다고 할 경우에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의 역사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자연주의자들은 역사로부터 어떤 의미를 추출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그저 물질과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세상은 시간과 관련된 근본적인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언젠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고, 그에 따라 이 세상은 고요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와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역사는 유물론

적 변증법에 따라 노예사회, 중세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런 역사의 흐름은 유물론적 법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인간이 할 일은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이 법칙이 요구하는 역사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도 지구상의 사회인 한 언젠가는 열역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동양사상들은 윤회를 이야기한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인간도 다시 태어난다. 세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되갚고, 과거의 잘한 일을 보상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역사는 인과응보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환상이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사상들은 기본적으로 허무하다. 역사에서 아무 궁극적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허무하다. 우주가 언젠가는 열평형적 죽음에 다다른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마치 파도와 같고 바람과 같은 일시적인 몸부림일 뿐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들은 결국 다른 파도에 의해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파도조차 없는 고요한 바다만이 남을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실존주의적 사고라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지나가는 바람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있는 일인가? 우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원한다.

역사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사는 창조주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된 세상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과 궁극적인 회복을 향해 가는, 분명한 경로와 목적이 있는 역사이다 (그림).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즉 세상은 아무 목적 없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다. 성경은 또한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세상은 윤회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곧!)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든 세상의 끝에는 적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행하는 일들은 영원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종착역에 대한 두려움에 차라리 세상의 끝에 아무 것도 없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윤회나 자연적 죽음 같은 도피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분명히 말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의미로 충만하게 한다. 인간과 세상의 역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흐르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 그리고 회복의 역사이다.



최태현 박사
행정학

무덤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일곱 사람

... 종교적 다원주의 곧 자유주의 신학을 검토해본 결과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다른 종교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와 사회가 점점 더 진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과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의 야비한 독재 등을 통해 경험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타락한 이성의 자존심이 이미 계시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문서라고 치부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막았을 것이다.

그들은 키에르케고르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이는 “신학적 철학적 분산”을 가져왔다. 신앙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주관적 관계, 체험의 문제로 돌려놓았다. 객관적 진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개별자인 ‘나’가 영원한 ‘너’와 나누는 교제와 의사소통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이처럼 진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진리가 되는 것을 따른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영감’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인간 영혼에 영향을 미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다. 이런 믿음은 성경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즉 ‘계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체험에 의해 상황적으로 정의되도록 만든다.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개인화(분산)시킨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영적 파괴다.

나는 실제 이 문제에 대해 직감적으로 고민을 안고 있었음을 알았다. 개인의 체험과 주관적 해석(깨달음)에 의존된 신앙 체계는 때로 정통 기독교 신앙보다 더 풍성한 영적 생활로 비춰진다. 그러나 언제 그것의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려 할 때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힘이 된 말씀, 나를 소생시킨 성령의 역사,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신 말씀, 내 삶을 놀라운 기적과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없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등을 다 고백할 수 있어도, 어디까지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었기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겐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경험되지 않을 수 있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도의 말문을 막아버리곤 했다. 아~ 이것이 “신학적 철학적 분산”이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근거를 상실시킨 영적 파괴가 분명했다.

창조과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터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특히 창세

기 1~11장까지의 역사가 온 인류의 공통 역사로서 명백한 사실이고, 계시이며, 우리 존재의 본질과 역사의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파괴된, 손상된 지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1)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맞추게 된다. 2)'우연'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만 있을 뿐이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된다. 3)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영원한 소망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알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4)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무모함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 부요를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창조된 우주는 그 모든 경이와 더불어 영원에 관한 진정한 이야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야기의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으라고 부르신다. 교회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지성을 장악하는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노회성/과학교사, 지난 2월 25일 제 4기 인턴쉽과정 (ITCM) 1을 마치고 두 번째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담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창 3:20)

AFTER EDEN

by Dan Lietha

www.AnswersInGenesis.org

71

© 2001 AIG

Dan Lietha

태초에, '어머니'라는 호칭을 다음 두가지 중
어디에 주었을까요?



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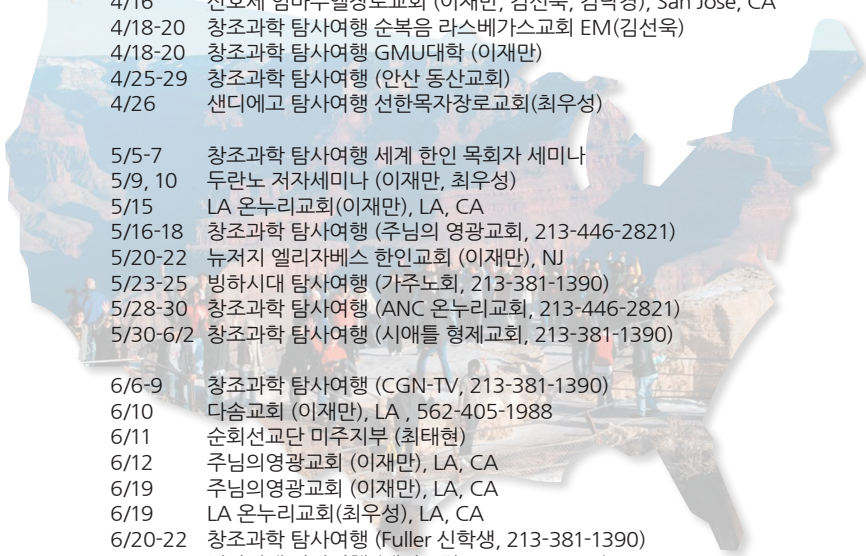


지구

힌트/지구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CREATION TRUTH 15

2011년 ACT Schedule

- 
- 4/3 야씨요 온누리교회
 - 4/8-10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이재만), GA
 - 4/10 LA 온누리교회(최태현), LA, CA
 - 4/16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이재만, 김선옥, 김낙경), San Jose, CA
 - 4/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순복음 라스베이가스교회 EM(김선옥)
 - 4/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GMU대학 (이재만)
 - 4/25-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 동산교회)
 - 4/26 샌디에고 탐사여행 선한목자장로교회(최우성)

 - 5/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계 한인 목회자 세미나
 - 5/9, 10 두란노 저자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 5/15 LA 온누리교회(이재만), LA, CA
 - 5/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주님의 영광교회, 213-446-2821)
 - 5/20-22 뉴저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이재만), NJ
 - 5/23-25 빙하시대 탐사여행 (가주노회, 213-381-1390)
 - 5/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 5/30-6/2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 6/6-9 창조과학 탐사여행 (CGN-TV, 213-381-1390)
 - 6/10 다솜교회 (이재만), LA, 562-405-1988
 - 6/11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최태현)
 - 6/12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19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19 LA 온누리교회(최우성), LA, CA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6/23-25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모집, 213-381-1390)
 - 6/26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12차 유학생, 213-381-1390)
 - 6/28-7/1 창조과학 탐사여행 (예일장로교회, 516-938-0383)
 - 6/19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